

84. 플라스틱 사출 근로자에서 발생한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

성별 남 **나이** 40세 **직종** 사출 작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이○○는 2002년 4월 O사에 입사하여 3년 5개월간 플라스틱으로 된 어린이집 놀이터나 비상탈출구에 쓰이는 통을 만들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퇴사 후 수개월 지나서부터 머리 부분부터 가려움증이 시작되어 점차 전신으로 퍼져 2002년 7월부터 2006년 5월 현재까지 S의원에서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2. 작업환경: 이○○는 사출 작업을 위해 폴리에틸렌과 각종 첨가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을 먼저 시행한다. 혼합하는 물질들은 정전기방지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들이 섞여 있어 이를 거르기 위해 체로 치게 된다. 체로 걸러진 분말들을 배합기에 부은 후에 1시간 정도 기계를 가동하여 재료를 잘 섞게 된다. 이 때 섞는 물질은 폴리에틸렌 원료, 아연, 자외선차단제, 산화방지제, 정전기방지제, 색소 등 6가지 물질이다. 혼합을 마친 물질들을 폴리에틸렌 자루에 받은 후 사출기에 부어서 고온(섭씨 220도)으로 가열한 후 녹여서 모양을 만들게 된다. 사출기에서 가열하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였으며, 가열하는 동안에는 바람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창문을 모두 닫는다. 가열 작업은 전체 작업 시간 중 보통 3-4시간 정도였다고 한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주일에 1회 정도 에어로 불어서 청소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작업장에는 특별한 환기 시설이 없었으나, 2005년에 상기 근로자 본인이 2개의 환풍기를 직접 설치하였다. 특별한 호흡보호구나 피부보호구는 사용한 적이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이○○는 이전에 피부질환이나 아토피 등의 과거력이 없었으며, 가족 중에서 피부 질환이 있었던 사람도 없다. 동료 근로자도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 증상이 만성적으로 있으면서 약물치료도 받았다. 이○○씨가 입사하기 전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들도 가려움증을 종종 호소하였다.

4. 결론: 근로자 이○○는

- ①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으로 진단되었고, 상기 근로자가 3년 5개월간 사출작업시 노출된 화학물질 중 피부감작성이 있는 benzophenone에 노출되었으며,
- ②근무하기 이전까지는 피부질환이 없다가 근무 2개월 후부터 피부 증상이 나타났고,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에게서도 피부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근로자 이○○의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